

목포권

대법 “바다모래 채취 불허 처분 정당”

진도군, 10개 업체와 법정공방 승소

“연안 침식·해양생물 산란장 파괴”

타 시·군 행정소송에도 영향 줄 듯

4년7개월여에 걸친 바다모래 채취 법정 다툼에서 진도군이 최종 승소했다.

진도군은 10개 모래채취업체(공업권자)와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달 23일 대법원에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이

날 ‘모래채취를 불허한 진도군 행정 처분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모래채취 업체인 D사 등 10개사는 지난 2002년 진도군이 바다모래채취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2003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 8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바다 모래 채취 불허가 처분취소(5건, 7개 업체)에 대해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파괴 등 피해사태가 없다”며 원고(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3건,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진도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진도군과 업체간 합의하에 부경대학교에 ‘바다모래채취가 바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광주고법은 용역 결과를 참고해 지난 5월 3일 ‘모래채취 불허가처분은

위법이 아니다’며 진도군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91년 이후 계속된 바다모래 채취로 진도 주변해역의 모래 총량이 직접적으로 감소해 ▲연안 침식 가속 ▲퇴적물 제거로 인해 수산자원이나 해양생물의 서식처 및 산란장 파괴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모래 채취 허가 등과 관련된 타 시·군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분청자기 멋 보리 황토골로 오세요

‘무안분청문화제’ 14~17일 열려
음악회·도자기 물레체험 등 다채

‘제 3회 무안분청문화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무안읍 불무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무안분청은 고려말부터 조선 중기까지 상행했던 가장 한국적인 서민들의 도자기로 자연스러운 선과 문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축제는 분청 도예가들이 무안분청을 되살리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으로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기법의 무안분청 전시회를 비롯해 조

형작가와 용기도예가 등이 참석하는 초청 도예작가 워크숍, 황토골 국악대향연, 무안분청 작은 음악회 등이 열리고 행사 기간에 도예가들의 분청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 관광객 체험행사로 분청자기 물레체험, 문양 그리기를 비롯해 어린이 분청 성형대회, 전통차 시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윤숙정 무안분청문화제 추진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일찍이래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분청 막사발을 국보로 지정하는 등 분청자기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를 ‘무안분청’의 역사성과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신안 군정소식지 특혜 논란

발간·배달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

제때 배달도 안돼 예산 낭비

신안군이 군정 소식지 발간 및 배달을 수의 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맡겨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은 총 예산 6천695만원을 들여 군정 소식지인 ‘해당화’ 탈북로이 드 판 2만2천부를 매달 제작기로 하고 목표 S 주간 신문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신안군은 전체 사업비가

1천만원이 넘으면 공개 입찰을 통해 적격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31조 1항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S 신문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소식지 제작 및 배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의회 양영모의원은 “군정 소식지를 세대에 배포하지 않고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쌓아두는 등 2천 70만원의 예산을 쟁겼다”며 “법을 어

기면서까지 인쇄시설도 없는 업체를 선정해 군정 소식을 군민들에게 전달하기는 커녕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특정 주간지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지역에 관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배송을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조완범기자 wncho@

중소 특별자금 지원

한은 목포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송시택)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등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상한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오는 2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된다.

이 자금은 한국은행이 전체 대출액의 50%에 대해 연 3.25%의 이자를 지원해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 갯바위 앞 철새 서식지 됐다

큰고니·쇠오리 등 14종 관찰

자연사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는 목포 갯바위 앞 바다가 새들의 새로운 서식처이자 중요 이동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자연사박물관 김석이 학예연구사가 지난 2006년 4월부터 1년간 박물관 앞바다에서 새들을 관찰한 결과 청둥오리 등 14종이 이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찰된 14종은 고니류 1종, 흑부리 오리류 1종, 수면오리류 8종, 잠수성

오리류 3종과 비오리류 1종이다.

특히 가장 많은 개체수가 관찰된 종은 쇠오리, 흑머리오리, 흑부리오리로 최대 1천300여 개체에 이르렀고 흰발검둥오리의 경우 여름철에도 이동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진만에 많은 개체가 월동하는 큰고니와 흰뺨오리와 당기줄 족자 이곳에서 관찰 되는 등 다양한 종들이 목포 앞바다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Table with 3 columns: 光州日報 日,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Rows include subscriber counts for various regions like 여수, 광안, 보성, 고흥, 녹동, 구례, 곡성, 목포, 무안, 완도, 영광, 신안, 진도, 강진, 함평, 나주시, 나주군, 화순, 장성, 담양, 영암, 장흥, 광산.



코스모스·해바라기, 그리고 높은 가을 하늘

진도군이 푸른 진도가꾸기 일환으로 진도를 전 주~군내면 나리 구간 방조제 일대 공한지에 조성한 꽃밭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만개했다. 진도군은 철새도래지인 나리 방조제 유희지에 가을에는 유채를 파종, 겨울 철새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도=박현경기자 hypark@

서남권 지역 체불임금 48억여원

“추석전 지급하라” 독려

노동부 목포지청

노동부 목포지청이 추석에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목포와 무안, 영암, 신안 등 전남 서남권 지역 1개시 8개 군 지역의 체불임금은 48억7천500만원

으로 192개사 471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목포지청은 이에 따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합동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오는 26일까지 제조업 하청업체 등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부도나 폐업으로 임금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안내 및 체불임금확인서를 우선 발급할 방침이다.

한편 목포지청은 11월 2억여 원의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선박블록 제조업체 대표 A(4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근로자 100명의 임금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체불한 혐의다.

A씨는 원청 회사로부터 기성금 2억 1천여만 원을 지급받고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대인동상업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기업체인 저회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회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건물투자. 분양권. 땅투자(상부지구). 모텔매매. 상가. 사무실(상부지구). 공장. 창고 및 기타. 주유소 부지.

정우부동산. 건물매매. 토지매매. 시외내송지.

첨단월세공인중개사. ★급매매★. 첨단인근 지역, 생생복지.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단 원룸 건물 매매.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건물매매. 고시원매매.

한일지도판매(주). 2007 최신 합본(광주·나주·순창·정읍·담양·함평) 지면도 책 판매중. 안락하시니까? 한일지도(주)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지도들 사방해주시는 사장님들에 특별세일을 실시하오니 7.20~8.20 한달동안 좋은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공인중개사. 전원주택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위 치: 담양군 용면 송서리 산28번지 일대. 분양면적: 205평서 414평까지. 분양가: 상담 후 결정. 급히 구합니다. 그린벨트 농지 3,000평 구할 서구 남구 경지정리농지(대토용).